

창조도시 대전

..... **비전 2030**

2008.5

대전발전연구원

<목차>

※ 대전비전 2030은?

I. 우리의 꿈과 가능성

- 우리는 꿈과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1. 대전의 현재 모습과 가능성
2. 우리에게 꿈이 필요한 이유

II. 미래비전과 전략과제

- 대전의 미래는 시민이 창조합니다!

1. 시민이 바라는 대전의 모습
2. 미래를 위한 선택
3. 주요 과제 및 목표

III. 분야별 액션 플랜

-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1. 경제 (김기희, 황혜란, 김태현)
2. 균형 (김홍태, 임병호)
3. 환경 (정환도, 이재근)
4. 교통 (이재영, 이범규, 김대현)
5. 복지 (주혜진, 박노동)
6. 문화 (문경원, 정선기)
7. 교육 (정선기, 이상용)
8. 행정 (윤기석, 최길수)

‘대전비전 2030’을 수립하며

○ 대전비전 2030은?

- ‘대전비전 2030’은 시민의 꿈과 지혜를 모아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작업이며, 앞으로 20년 동안 대전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미래의 전략 플랜입니다.
- ‘대전비전 2030’은 시민의 열정·참여를 통해서 도시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려는 시·공간적 플랜이며, 따라서 사람과 장소를 연계하고, 환경 친화적 실천에 대한 관리까지도 포괄합니다.
- ‘대전비전 2030’은 시민의 희망이 담긴 공동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므로 무엇보다도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대전의 성장은?

연도(대)	도시의 성장	
구석기시대	- 금강상류의 지류인 갑천 유역(현재의 둔산지역)에서 생활 (둔산동, 구즉동 유적)	
신석기시대	- 주민들이 촌락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농경생활 (둔산동 유적)	
청동기시대	- 괴정동, 탄방동, 둔산동 부근 거주	
삼한시대	- 54개국의 소국연맹체 중 신한국 (후한서 동이전-현재 유성구 계산동 ·대정동 부근) 또는 내비라국 입지	
삼국시대 (백제시대)	- 우술군-세풍군(우술군 노사지현·소비포현·회덕) 황등이군(진현현), 탄현 대전 동부 호로 신리를 방어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점함, 백제부흥운동군의 거점지 역할(구성동산성, 월평동산성)	
고려시대	- 양광도 공주목 관할의 회덕현, 진잠현, 덕진현, 유성현, 충순현 명학소의 민란시 승격)명학소 현재의 탄방동, 둔산동 일대 추정 망이·망소이 난 발생	
조선시대	- 태종 13년(1413) 공주목(회덕현, 진잠현) - 현종 12년(1600) 호구 : 2,490, 인구 : 남 5,278 여 5,017 - 고종 32년(1895) 회덕군, 진잠군	
일제시대	1905.01.	- 경부선 개통 및 대전역 신설
	1914.03.	- 부령 제111호(1913.12.29 공포)로 회덕군, 진잠군 일부를 통합하여 대전군 대전면 현 인동, 중동, 원동, 정동, 삼성동)으로 뒀, 면적 : 5.1km ² 군청이전(읍내-원동), 호남선 개통
	1917.10.	- 대전면이 지정면으로 되고 외남면의 대전리, 수침리, 대흥리, 목척리, 발암리, 무사리 일부, 외천리 일부 소재리 일부를 편입
	1926.03.	- 구역확장으로 외남면의 외천리, 신대리, 대동리, 소재리, 연효리 편입, 처음으로 대전도시계획사업 실시
	1931.04.	- 부령 제103호(1931. 3.1 공포)로 대전면이 대전읍으로 승격(인구 : 23,284명)
	1932.10.	- 충청남도 도청 이전 공주-대전, 외남면의 방축리·대사리·부사리, 유천면의 용두·평리(하평) 편입
	1935.10.	- 부령 제112호(1935. 9.28 공포)로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 - 대전군이 폐지되고 대덕군 신설(면적 : 11.33km ² , 인구 : 39,061명)
1940.11.	- 외남면의 산소리·용방리·탁곡리·기양리·홍도리, 산내면의 석교리 유천면의 평리 일부(상평) 유천리·과례리 및 당대리 편입(면적 : 35.71km ² , 인구 : 63,712명) - 외남면의 전역지역인 삼정리·가오리·호동리·옥계리 및 대상리가 산내면에 편입됨으로써 외남면은 폐지	
해방이후	1949.08.	- 법률 제32호(1949. 7. 4 공포)로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대전부를 대전시로 개칭 면적: 35.71 km ² 인구: 126,704명, 가구: 2,338)
	1963.01.	- 법률 제1175호(1962.11.21 공포)로 대덕군의 유천면 전역과 회덕면의 대화·오정·용전리, 산내면의 옥계·삼정·가오·호동리를 편입(면적 : 88.21m ² , 인구 : 289,511명, 35개 행정동, 54개 법정동)
	1970.07.	- 대동, 성남, 산성, 선화, 문창, 용두, 대흥동 분동(45개 행정동, 54개 법정동)
	1970.09.	- 경부고속도로 완전 개통(서울-부산)
	1970.12.	- 호남고속도로 개통(대전-전주)
	1971.07.	- 시 조례 제461호(1971.6.2 공포)로 4개 출장소 설치 (동부 11개동, 중부 14개동, 북부 9개동, 서부 11개동)
	1977.09.	- 대통령령 제8667호(1977.8.27. 공포)로 출장소제를 폐지하고 동구청, 중구청 설치
	1983.02.	-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 공포)로 대덕군 유성읍과 회덕면 전역, 구즉면의 원촌·문지·전민·용신리 일부, 탄동면의 신성·가정·도룡·장동·내동·회암·덕진·하기리, 기성면의 관저·도안·기수·원리, 진잠면의 내동·교촌·대정·용계·학하리를 편입 행정구역 확대(2구6)개 행정동 95개 법정동
	1988.01.	- 대통령령 제12367호(1987.12.31. 공포)로 서구청 신설(3구 1출장소 63개동)
	1989.01.	- 법률 제4049호(1988.12.31. 공포)로 대덕군 전역 편입과 함께 대전직할시가 됨(진잠면 남천리 제외), 면적 : 536.86km ² , 인구 : 1,051,785명, 5개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75개 행정동, 176개 법정동
1995.01.	- 법률 제4789호(1994.6.30. 공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전광역시로 명칭을 변경	

○ 대전비전 2030의 수립은?

- 1998년 ‘대전비전 2020’이 처음 수립된 이후 두 차례(2002년, 2005년) 부분적인 보정을 거쳐 계속 발간되었으나, 그동안 변화된 정책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대전비전 2030’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대전비전 2020’이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의 포괄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의 성격이 강했다면, ‘대전비전 2030’은 대전의 미래비전 설정 및 그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개발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 ‘대전비전 2030’은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추진하였던 기존의 ‘대전비전 2020’ 계획과 달리 ‘대전발전연구원’과 ‘정책프로젝트팀’(대전광역시)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립되었습니다.
- ‘대전비전 2030’은 기 수행된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SERI, 2008)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대전을 창조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미래비전, 전략, 프로젝트, 프로그램, 파트너십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대전비전 2030’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수차례의 연구진 및 자문 회의를 거쳐 대전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였고, 글로벌 트렌드, 미래 프로젝트, 시정의 주요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대전비전 2030의 구성은?

- ‘대전비전 2030’은 기존의 ‘대전비전 2020’과 전적으로 다른 내용 및 구성을 통해서 변화된 정책 환경과 시민의식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우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필요한 이유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대전비전 2030’의 수립의 의미, 내용 구성, 기존 계획수립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기초해서 대전의 미래

에 대한 시민의 가지고 있는 꿈과 기대,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에 기초해서 창조도시 대전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략과 중점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끝으로, 앞에서 도출된 대전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도시계획’, ‘환경’, ‘교통’,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전략 및 중점 과제를 설정·제안하고 있습니다.

I. 우리는 꿈과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1. 대전의 현재 모습과 가능성

○ 지금 사회는?

- 지식정보기반의 강화로 사회 각 분야의 네트워크가 심화되고,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 권위적인 전통적 위계서열이 파괴되고, 새로운 가치와 선택의 다양성이 확장되면서 민주적인 생활양식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양식이 변하고,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출산력이 저하되어 연령별 인구 구성이 변하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인구 구성의 변화, 가속화된 글로벌화, 노동시장의 무국경화,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고용 정책의 시행 등으로 노동력의 다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회는?

- 탈권위주의화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향후 참여를 통해서 생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환경 및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과 생명의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 입니다.
- 여성의 사회 참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가부장적 전통 하에서 제한되어 왔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차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구화·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유입되어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 소수자의 수는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 분권 및 분산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은 지속적으로 추진·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간 제도 및 정책의 상생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광역권 공동 협력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면 대전은?

-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 유입률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1,607만**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면 대전은 그 배후도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갖추지 못한 교육·문화 향유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배후도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은 국내 및 동북아 R&D 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며, 2004년 3.6조원의 대덕연구단지 매출액이 2009년에는 6조원에 이르게 되고, 벤처기업은 1,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 대전은 다수의 ETRI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기관 외에도 충남대와 ‘KAIST’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우리나라(동북아) 핵심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대전은 중부권의 주요 거점도시로서 충청권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도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광역권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2008년 대전

- 2008년 현재 150만명 주민이 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도시 인구가 9.2%가 증가했고 2002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3.9%의 성장이 이루어졌음
- 도시의 가구원수는 가구당 평균 2.9명으로 전국 7대광역시 평균 3.4명에 비해 부부 중심의 가구가 많은 편임
-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7.9%로 전국평균 10.3%보다 낮으며, 평균 연령은 33.8세로서 전국 평균 35.6세보다 젊고, 14세 이하의 비율도 18.7%로 전국 평균 17.4%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성을 보이고 있음
- 대전 인구의 출신지 구성은 타 도시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19.65%이고, 외국인 전체 인구의 0.3%로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높은 주민구성을 보임
- 2008년 6월 현재 대전지역의 일자리 수는 38,000개이고, 경제 성장은 5.9%, 실업률은 3.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대전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 8개, 2년제 대학 5개, 기타 대학원대학 6개를 포함하여 모두 19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학생수는 2년제 대학 34,831명, 4년제 대학 112,813명으로 총 147,644명임
- 대중 운송수단을 통한 출퇴근 비율은 25.74%이며, 자동차는 가구당 1.03개로 전국 평균 1.05개보다 약간 적고, 18세 이상 자동차 면허 소유자는 69.8%로서 7대 광역대도시 평균 77.8%보다 낮은 편임
- 하루에 자동차 사용은 개인당 56.66km로서 7대 광역대도시 평균 57.12km보다 약간 적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은 28.7%로 7대 광역대도시 평균은 27.76%보다 높은 편임
- 대전의 물소비는 연간 183,543,840,000,000ml 1년 동안 0.64%절감하였고, 향후 1인당 물소비는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에 400 l/일, 2020년 420 l/일 그리고 2030년 440 l/일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여 2010년 0.86 kg/일, 2020년 0.79 kg/일 그리고 2030년 0.74 kg/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2. 우리에게 꿈이 필요한 이유

- 지금 세계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 세계는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세와 더불어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권 단위를 초광역화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 지금 세계는 국경을 초월하여 상생을 위한 협력과 통합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 세계는 지금 국가·도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협력과 통합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 이제 경쟁은 단순한 제로섬의 게임이 아니라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창출해야만 하는 협력·상생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 이제는 개발 시대의 양적 성장의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내실에 주목하는 질적 성장의 논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그동안 외연적 확산의 논리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고 도시의 생태적·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그동안 성장의 논리에 의해 주변부로 배제·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해 눈을 돌려 모든 시민 함께 참여하여 동행·향유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이제 지역의 경쟁력은 과거와 달리 어떤 물적 인프라의 소유여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활용하는 지적 창의력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적·비물적 수단의 소유·존재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제 수단을 만들어 내고 다룰 수 있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지적 역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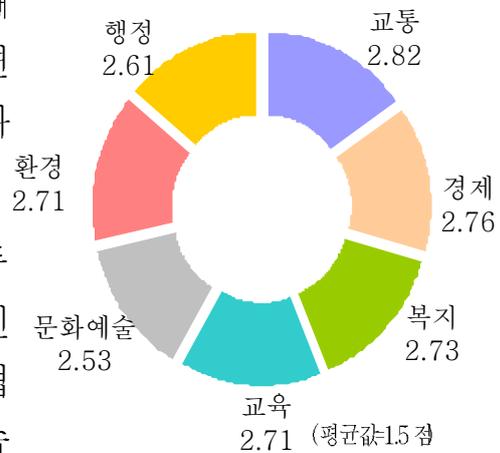
-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창조·창의력은 최고의 자산이며, 창의·창조적인 지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 새로운 지식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지역 경쟁력 및 삶의 질 제고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세계의 모든 지역·도시는 경쟁적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정보의 창출·활용 능력은 단순히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세계의 모든 지역·도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창의적인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체험·학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식기반시대에는 물질의 풍요로움보다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강화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경제적, 환경적 조화를 통해 시민들이 현재와 미래 모두에 수용할만한 복지수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시환경을 생태적 환경과 일치시키는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인간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인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II. 대전의 미래는 시민이 창조합니다.

1. 시민이 바라는 대전의 모습

■ 시민의 기대와 열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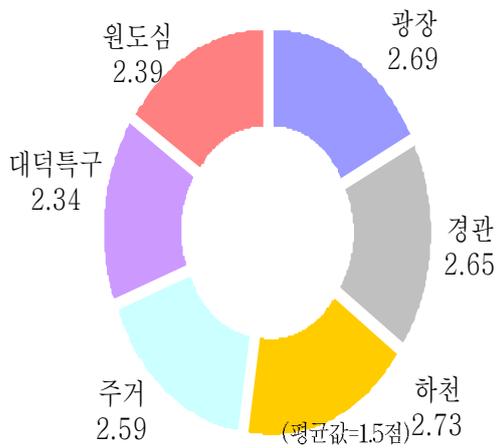
- 20년후 미래 대전에 대해서 시민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공간적으로 ‘쾌적하며’, 사회적으로 ‘안전한’ 도시의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전시민이 지속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는 ‘과학자원’, ‘자연환경’, ‘교육(학습)시설’, ‘여가(문화)공간’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는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지식(창조)산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선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깨끗하고 푸른 전원적 경관, 여유롭고 편안한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특히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 대전시민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는 첫째가 교통(2.82점)이었고, 다음으로 경제(2.76점), 복지(2.73), 교육(2.71), 환경(2.71) 순이었습니다.

- 또한, 대전이 보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으로는 우선적으로 ‘하



<대전의 보존해야 할 생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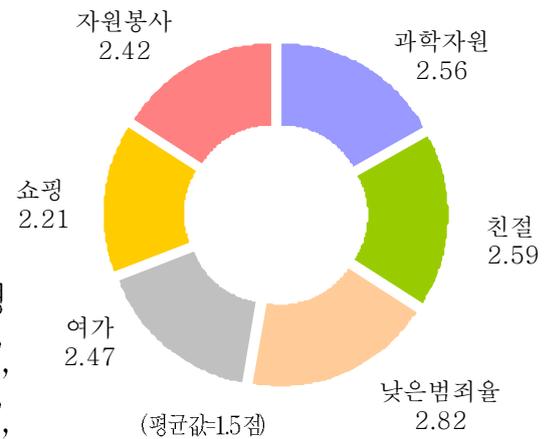
‘과학자원’(2.56) 순이었습니다.

- 시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연환경으로는 주변의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과 ‘대청댐’,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이 우선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한편, 시민이 생각하는 대전의 과학자원으로는 ‘엑스포공원’, ‘대덕연구단지’, ‘대덕R&D특구’, ‘중앙과학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천’(2.73점)을 지목하고 있으며, 기타 ‘광장’(2.69점)이나 ‘경관’(2.65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생활 속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전의 특성 중에는 첫째가 ‘낮은 범죄율’(2.82)이었고, 다음으로 ‘친절’(2.59),



<대전이 보존해야 할 특성>

■ 시민의 노력은?

-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이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도시 발전의 추동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시민의 창조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동체가 함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소통의 학습도시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공동체적 학습도시는 다양한 생활양식이 수용되고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다원적인 문화·예술적 토양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경제가 친환경·고부가가치의 지식(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재편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지식·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급인력 유인’, ‘효율적인 인허가’, ‘관세 완화’ 등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역의 역점 시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 및 투자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디자인의 질을 개선하고, 생기 있는 녹색 공간이 어우러진 노약자(어린이·장애인·노인) 친화적인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 쾌적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계획’, ‘디자인’, ‘제도’, ‘접근성’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명품 건축물과 공유지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 의존을 줄이려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 여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을 확충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 쾌적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물’, ‘쓰레기’ 등에 대한 도시의 환경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래 지향적인 건축과 공간 조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생태적인 도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감축하여 청정한 도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공동체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 시민이 소망하는 대전의 모습은?

시민은 대전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어느 곳이나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동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포용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 ▶ 생기 있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도시
- ▶ 접근성이 양호하고 낭비가 없는 스마트도시
- ▶ 보다 나은 건물 및 도시 디자인의 도시
- ▶ 랜드마크와 어메니티의 도시
- ▶ 지속가능성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도시
- ▶ 문화, 예술, 음악, 음식, 건축으로 명성이 있는 도시
- ▶ 지역별 특성이 있는 도시
- ▶ 동북아 과학기술의 거점도시
- ▶ 교통정체가 적은 도시
- ▶ 영혼이 있는 도시
- ▶ 걸을 수 있는 도시
- ▶ 스타가 아닌 예술가를 위한 공간이 있는 도시
- ▶ 문화 네트워크가 있는 도시
- ▶ 에너지와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감축하는 도시
- ▶ 환경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도시
- ▶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자급자족도시
- ▶ ‘청정’이라는 이름의 녹색도시
- ▶ 문화, 종교, 연령, 젠더, 다양한 가족구조를 존중하는 도시
- ▶ 사람들이 자동차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도시
- ▶ 사람 중심으로 잘 계획된 대중교통의 도시

2. 미래를 위한 선택

1) 도시 특성화

- 대전은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 한밭에서 시작된 젊은 도시 대전은 무한한 관용(tolerance)으로 다문화를 수용하여 글로벌 거점 도시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 대전은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의 도시입니다!
 - 대전은 과학기술(Science&Technology)의 도시이며, 과학기술은 새로움을 만드는 창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 대전은 더불어 배우는 학습도시입니다!
 - 사람은 최고의 자원이며, 서로 소통하고 배우는 공동체적 학습도시를 통해서만 인재(Talent)가 양성될 수 있습니다.
- 대전은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풍부한 생태도시입니다!
 - 우리의 푸른 숲과 맑은 물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고, 대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 대전은 함께 나누는 정다운 도시입니다!
 - 축적된 재화는 오직 함께 나누는 마음·행위를 통해서만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원으로 변용될 수가 있습니다.
- 대전은 21C 지식기반사회 국가 발전의 선도지역입니다!
 - 대전은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성장 동력인 고급 인적자원이 밀집해 있는 R&D 전략 지역으로서 미래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만 합니다.

3) 기본 방향

‘대전비전 2030’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환경, 복지, 교통, 문화, 교육, 행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의 전략 플랜이며, 공간적으로는 대전 관내를 포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광역적 협력을 통해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를 지식창조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동북아의 선도적 R&D 비즈니스 국제도시로 특화되어야 합니다.
 - ▶ 대전이 동북아의 선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R&D 비즈니스 지역으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품질과 효율성, 인적 자원의 역량과 기술, 창의성과 다양성을 수용·존중하는 문화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 창의적인 고급인력의 유인·확보가 필요합니다.
 - ▶ 창의적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일차적이 관건이 되어 감에 따라 모든 도시가 창의적인 고급 인력을 유인·확보하기 노력하고 있으며, 점점 더 그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기술, 기반시설, 어메니티 같은 도시의 속성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입니다.
- 지식창조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 ▶ 앞으로 세계는 노동 이동성의 증대와 더불어 지역·도시 사이의 노동시장 긴장이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한 도시간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 도시경제가 지속가능한 논리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 ▶ 많은 국내외 도시가 점점 더 일자리, 투자, 젊은 인재를 둘러싼 경쟁의 소용

돌이에 빠져들고 있지만, 단순히 성장을 위한 경제적 추동은 자칫 더 심각한 미래의 부담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도시 경제는 단순한 성장의 논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논리로 운용되어야만 합니다.

○ **사람 중심의 푸르고 깨끗한 생태적 도시디자인이 연출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수준의 녹색 도시 환경의 조성이 요구됩니다.**

▶ 새로운 환경적 부담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는 점점 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기후와 환경 의제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응집력이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모든 도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온난화 현상과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기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선진적인 도시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점증하는 도시교통의 부담에 대한 대응은 미래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래 교통시스템의 과제는 단순히 도시 활동에 필요한 접근성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의 환경적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 대중교통은 ‘자전거 타기’, ‘보행’과 더불어 점증하는 이동량(여행)의 더 많은 부분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래 지향적인 생태적 공간 디자인이 연출되어야 합니다.**

▶ 대전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의 공간 디자인과 건축 설계를 통해서 에너지와 용수 사용, 쓰레기 배출, 대기오염 등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 생활공간을 연출하여 예상되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질 높은 삶을 향유하는 도시 공동체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 **선진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 도시는 점점 더 부유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도시 경영은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관련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예방)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감성을 자극하는 쾌적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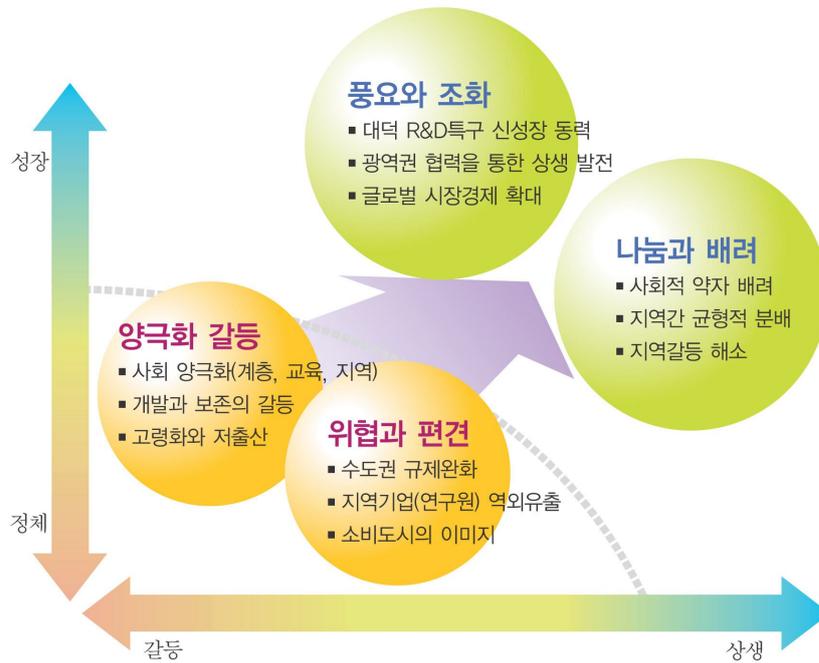
▶ 미래에는 도서관,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문화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 공급 이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가지, 상점, 레스토랑, 광장, 보행환경 등 도시 공간의 디자인은 도심과 주변지역의 교류 및 상호작용의 촉진하는 도시 역량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도시는 질 높은 도시 디자인과 공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 **함께 참여하며 소통하는 도시 공동체를 구현해야 합니다.**

▶ 점차 심화되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이 함께 소통하며 나누는 참여적 공동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마트 U-City를 조성해야 합니다.**

▶ 미래에는 ICT의 이용과 응용 역량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더욱 중요해지므로, 대전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ICT에 기초한 도시 기반 구축 및 그에 대한 지식·기능의 증대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참여의 출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주요 과제

1) 기본 목표

대전의 미래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고용’, ‘의료’, ‘환경’, ‘문화’, ‘교육’, ‘교통’, ‘생활권’, ‘도시재생’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는 ‘소통’(연결·접속)하는 창조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경쟁력

- ▶ 국내외 방문객, 주요 이벤트, 컨퍼런스와 관련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여 지식(창조)산업 중심의 국제회의, 투자, 고품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

○ 쾌적한 생활공간

- ▶ 고품질의 어메니티, 편리한 접근성, 매력적인 광장, 창의적 디자인, 활동적인 거리 등 문화적 활기가 넘치는 도시의 생활공간을 창출

○ 편리한 연결성

- ▶ 선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보 및 사이클링 연결성을 제고하여 도심과 주변 생활권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도시 공간의 접근성을 제고

○ 생태지향적 환경

- ▶ 건축, 공간, 거리, 교통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하여 에너지와 용수 사용, 쓰레기 배출, 대기오염 등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

○ 공간(장소) 디자인

- ▶ 전통과 이야기가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구성하여 옥외 생활의 질을 높임

○ 창의적인 학습

- ▶ ‘전통’, ‘시각’, ‘문화(예술)’, ‘시민’ 지식에 기초한 학습, 기업문화, 성취 등을 촉진하여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창의성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도시를 구현

○ 풍요로운 문화·예술

- ▶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노동자, 방문객 등 다양한 집단의 참여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이벤트, 퍼포먼스가 활발한 ‘창의적’ 문화·예술도시 구현

○ 다원적 생활양식

- ▶ 상이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배려·존중되고, 외국 노동자, 방문객, 결혼이민자 등 상이한 문화적 전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다원적 문화 공동체 실현

○ 사회적 형평성

- ▶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연대감이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사회자본)가 높은 도시 공동체 실현

○ 도시 거버넌스

- ▶ 시의회, 기초단체, 기업가, 시민 사이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발전, 환경관리, 행정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2) 실행영역별 전략과 과제

실행영역	전략	과제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습도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인재 교육 ·창조산업 인력 육성 ·창의 인재 유인 ·창조산업관련 인력 유인 ·시민 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식서비스산업
	국내외 창의인재 유인 시민주도의 공동체적 학습사회 구현	
과학과 문화에 기반한 지식경제도시	창조산업 성장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반 문화산업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창조산업 인력양성 ·연구개발지원 ·자원 인프라 구축 ·기존산업 생산능력 증진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증진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순환구조 형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창조산업단지 조성 ·중부권의 헤드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 ·충청권공동발전단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 ·지역별 브랜드화로 균형발전 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시스템(U-city)구축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밀착형 늘푸른 그린도시 조성 ·수변공간 자연으로의 회귀 프로젝트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전환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보행자 위주 환경조성 ·자전거교통 인프라 확충 ·배출가스 저감 및 연료효율 제고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운영체계 정비 ·도시융합형 복지환경 조성 ·여성의 창조역량 강화와 활용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 추구 ·어린이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및 소수자의 활동과 지원보장 ·시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구축 ·순수창작 예술인 활동 지원 ·창작예술인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 ·시민생활문화 향유여건 개선 ·감성적 도시문화 체험공간 조성 ·시민의 창의적 문화체험 ·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대전대도시권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의 구체화 ·참여자치의 제도화 ·시민들의 자치역량 제고 ·내외부 교액민족 극대화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후생복지의 조화 ·민생현인의 공유 ·시민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 확대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기반 확충
	창조산업 혁신체계 구축	
	균형적인 선순환 경제발전 추구	
	충청광역경제권 형성	
쾌적하고 매력적인 환경도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복지수요별 맞춤형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융합형 복지환경 조성 ·여성의 창조역량 강화와 활용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 추구 ·어린이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및 소수자의 활동과 지원보장 ·시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구축 ·순수창작 예술인 활동 지원 ·창작예술인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 ·시민생활문화 향유여건 개선 ·감성적 도시문화 체험공간 조성 ·시민의 창의적 문화체험 ·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대전대도시권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의 구체화 ·참여자치의 제도화 ·시민들의 자치역량 제고 ·내외부 교액민족 극대화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후생복지의 조화 ·민생현인의 공유 ·시민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 확대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기반 확충
	시민참여시스템 구축	
품격 높은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환경 구축
	문화예술적 도시공간 창출	
	다원적 문화공동체 지원	
참여하고 연대하는 소통도시	초광역행정체계(GIO)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환경 구축
	주민자치역량 기반조성	
	행정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의회-집행부간 상생협력 구축	
시민참여적 만남과 소통의 도시 구축		

Ⅲ.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1. 학습도시 (Creative Human Capital)

대전을 시민이 함께 호흡·소통·체험하는 학습의 장(fields)으로 조성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창의적 인재(creative talent)로 성장하고, 지역의 축적된 R&D 잠재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창의적 학습도시를 구현합니다.



■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공동체적 학습사회를 구현합니다.

I 왜 필요한가?

-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학습기반이 필요합니다!
- 대전이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적 학습인프라가 중요합니다!

I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시민의 창조성이 도시 발전의 추동력이 되는 공동체적 학습사회를 구현합니다.
-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제가 양성되는 동북아 과학기술교육의 메카를 실현합니다.
- 대덕R&D특구의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연구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I 어떻게 추진하는가?

- 특성화된 국제·과학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북아 과학기술교육의 메카로 도약합니다.
-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기반사회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체적 학습사회를 실현합니다.
- 과학기술·연구개발 허브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인재 양성·배출·활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국제화 및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전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I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글로벌 인재교육

- 글로벌 수준의 대전국제영재학교 설립·운영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인재 발굴·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
 - 영재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전 계층의 창의성 제고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대전의 창조이미지 극대화
 - 과학과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적 발상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특구의 우수한 물적·인적 과학기술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위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과학영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심화교육과정 제공하고, 해외 학술교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운영하여 영어 이머전(emersion) 수업에 의한 국제과학영재를 양성
- 국제 청소년 과학·수학캠프 운영
 -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살린 과학·수학캠프 운영으로 창의적인 과학자 양성에 기여
 - 지역을 포함한 국내외 청소년을 선발하여 과학·수학 캠프를 개설 운영하여 글로벌 창조 인재의 교류기회 제공
 - 대덕이 지닌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덕특구 및 지역 대학의 과학자들을 캠프 운영강사로 활용
- 대전창의인재양성재단 설립·운영
 - 대전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적 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

-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 연수 및 유학활동 지원
-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대전인재양성재단' 추진위원단 구성·운영

□ 창조산업 인력 육성

○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설립·운영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인력 양성에 기여
- 대중문화예술 중심의 캐릭터, 디자인, 영상(게임), 미디어 등 첨단 CT와 연계된 문화예술 분야 교과 과정으로 운영

○ 연합캠퍼스 건립

- 지역대학이 공동사용 가능한 공동 활용 교육 인프라 구축
- 시민의 창의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개방과 공유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 운영
- 지역의 교육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소통의 장 제공

○ 상상아카데미(창조스쿨) 운영

- 시민들의 창의성 배양을 위한 특화된 교양 강좌 프로그램 제공
- 대덕특구의 우수 인력 및 지역 내 문화예술 인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수준을 제고
- 수요 분석에 기초하여 인문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생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운영

- 단순한 지식의 전달, 교양학습, 취미교육을 지양하고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적 발상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로 특화

■ 대전은 글로벌 창조 인재가 찾는 동북아 과학기술교육의 요람이 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대덕연구단지는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견인지로서 미래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해 갈 연구인력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 점차 융·복합되어가는 과학기술 발전의 추세에 따라 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 대전은 무엇보다 대덕R&D특구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가 양성되는 동북아 과학기술교육의 메카를 실현하여 우수한 해외 연구 인력 및 기관을 유인·입주시킨다.
- 대덕R&D특구를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융·복합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
- 대덕R&D특구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과학기술 교육의 허브로 육성하여 해외의 우수 과학자(시설)를 초빙(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대덕R&D특구의 전문연구개발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미래 글로벌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북아 과학기술교육의 메카로 조성합니다.
- 우수한 국내외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교육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집중하는 융·복합기술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전문적으로 융·복합 기술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국내외 창조산업관련 전문인력을 유인·양성하여 지역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합니다.

I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창의 인재 유인

- ‘국립 과학기술 전문화 교육원’ 설립
 - KAIST, ICU를 포함한 대덕R&D특구의 고급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 융·복합 전문연구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
 - 글로벌 수준의 과학기술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융·복합 분야 학제간 심화 전문연구과정 설치
 - 국내외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 교육과정 설치·운영
 - Interdisciplinary educational program을 운영하여 비전공자를 위한 과학기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전문 공학·과학 인력을 위한 비전공 교육프로그램 개발 (MBA, Leadership program, Foreign Language program, Communication skill development program 설치·운영)
- 외국과학기술인력교류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의 기관 및 전문가와 활발한 교류 및 유인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의 우수과학기술 인재의 지역유입 촉진 및 지식교류의 장 형성
 - 외국의 기관 및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하여 과학기술 전문인력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확대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인력과 교류 확대하고, 국외 기관과 전문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식·정보 이전을 강화
- 세계 창의력대회(창조올림픽) 확대 개최
 - 국내외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와 전시회, 경

진대회 개최

- 국내 예선대회를 사업의 홍보기회로 활용하고, 사업기간 중 각종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
- 창의인력 국제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의 창조산업인력을 대전으로 유인하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능한 인재를 대전의 창조산업 활성화에 활용
 - 외국의 우수 창조산업 관련기업 및 교포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대전창의인재육성재단’(가칭)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하여 창조의 메카로서 도시기능을 강화
- 해외석학 및 창조계층 유입촉진사업
 - 대전이외 지역의 창조계층의 대전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전의 창조도시화를 촉진
 - 해외지역의 창조인력 유입을 위한 국제마케팅 강화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접근 및 지식공유 기회를 확대
 - 대전권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외국 우수인재 교류를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
 - 창의인재양성재단 내에 창조인력 유입을 위한 ‘창의인재유입지원팀(가칭)’을 운영하고, 국내외 창조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시 차원의 장학사업 추진
- 창의시민 Mentor 제도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창조도시 대전의 포용성을 넓히고 대전에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조기정착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 자발적 참여 Mentor 모집·관리 시스템 구축하여 각 동 단위로 주민자치

센터를 활용하여 Mentor 교육·관리

- Mentor의 지원 실적에 따라 Point를 부여하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Point제도를 실시하여 참여 유도

○ 지식저장소 운영

- 창조도시 대전이 창출하는 지식과 노하우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포털 구축을 통하여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계층 및 R&D 인력의 참여 유도
- Web 2.0 기반의 창조도시 대전 온라인 포털 구축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원
- 대전시 주요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인트라넷을 통합하는 지식 시스템과의 연계망 구축

○ 해외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 유치

-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국제적 우수 연구 및 교육기관의 캠퍼스나 분원을 대전에 유치
- 유치된 해외 교육연구기관과 지역 교육연구기관을 연계하여 국제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여 창의 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
- 외국대학 시장 개방의 정책 추이를 고려하여 해외 사이버대학의 우수과정을 유치하는 방법도 병행
- 국제적 교육연구기관의 분원 및 캠퍼스의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 TFT의 구성하고 유치에 따른 제반 지원 사항 및 기획 수립

□ 창조산업 관련 인력 유인

○ 대전문화창작발전소 설립·운영

- 대전의 첨단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on-off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 문화 콘텐츠의 창작·실습의 장으로 활용

- 창조도시 대전의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첨단 문화 콘텐츠 개발
- 첨단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 기능을 포함
- 첨단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첨단문화에 대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축적하는 상상력 발전소로 활용
- 세계 창조리더 포럼 개최
 - 국내외 창조 리더들을 초빙하여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창조도시로서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
 - 글로벌 창조 리더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여 국제 교류를 통한 창의 인재 양성 및 창조도시 메카로서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

■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없는 소통과 나눔의 학습도시를 조성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심화되는 지역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자라나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에 기초한 교육인프라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의 교육은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시민과 지역사회 자체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는 공동체적 학습사회를 기반으로 합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자라나는 세대가 창의적 인재(creative talent)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자체를 시민이 함께 호흡·소통·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 조성합니다.
-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정책 추진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지역, 교육청, 학교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합니다.
- 시민의 지식에 기초한 학습 문화를 촉진하여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창의성이 발현되는 학습도시를 실현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시민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지식담장 허물기 사업
 - 지역의 다양한 혁신기관이 보유한 창의적 지식에 대한 주민의 접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지역사회의 창의성 제고

- 지식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발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사회 기여도를 향상시킴
 - 대학, 도서관, 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구축하여 보유한 지식 인프라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각종 정보데이터베이스 등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지식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경로를 시민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보접근의 편의 제공
- 창의적 아이디어 쉼터
- 일상생활에서 생성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지식적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창의성을 제고
 -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식의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롭고 상상력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
 - 아이디어의 생산, 교류, 확산을 위해 on-off line의 창의적 아이디어 공간 제공하고, 아이디어 쉼터에서 창출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의성 교·자재를 발굴
 - 창의적 아이디어 쉼터에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공간적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창의성 학습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창의적 사고법, 발명 등 창의력 배양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
 - 창의적 아이디어 쉼터에 'idea plaza'(가칭)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이 발굴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가능한 논쟁의 장을 제공
- 자생적 학습공동체 지원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
 - 열린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공간을 지역민의 교육·문화의 장으로 조성
 - '작은 도서관'(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현 85개소 → 100개소), '책 읽는 대전' 운동을 전개

-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학습 환경 및 시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학습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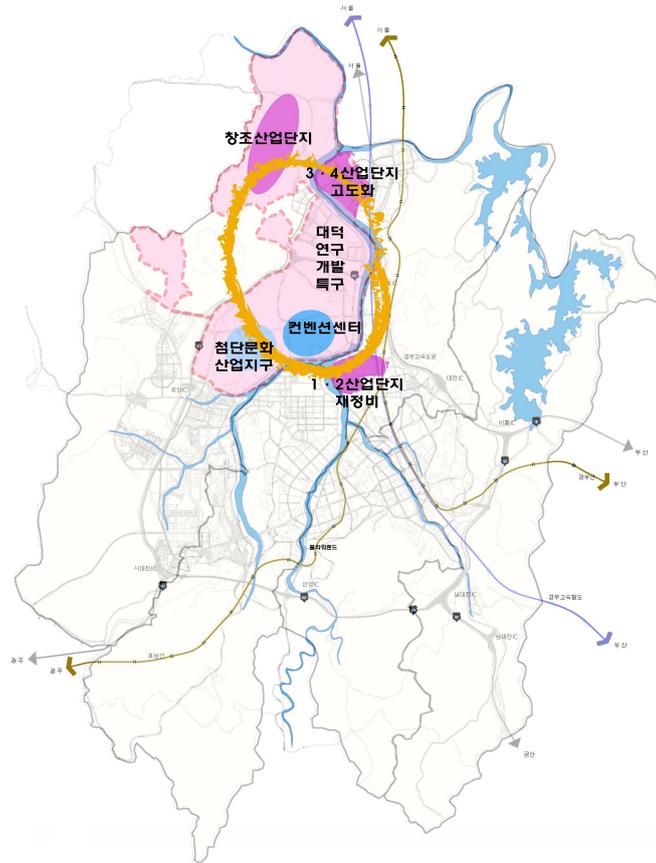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
 -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하여 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존의 대전시 산하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개편하여 진흥원으로 설립하고, 각 구청에 평생교육센터를 확대지정
- ‘상상스토어(idea store)’ 사업
 - 창의적 문화와 아이디어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창조적 영업 공간 조성, 서비스 혁신, 인력활용, 고객관리 등 창의적 문화와 아이디어를 통해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의적 문화의 확산
 - 서비스 자영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실천사례를 공모하여 심사 평가한 후 ‘상상스토어’로 지정
 - ‘상상스토어’로 지정된 서비스 업체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 및 영상을 통한 홍보 기회를 부여
- 아파트 단지별 1평생학습관 갖기 사업
 -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 평생학습관 조성·활용

- 아파트 1단지별 1평생학습센터 및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각 단지별 관리 사무소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수요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
- 창조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대전이 보유한 창조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창조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창조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적재적소에 창조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창조산업 관련 직종 및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창조인력 Pool'을 운영
 -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둔 전문 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SCORE제도 강화

2. 창조지식경제 (Culture & Science Industry)

창조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소프트 인프라 및 기업 지원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구축·운영하여, 지역 경제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광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합니다.



■ 대전이 글로벌 창조산업의 허브로 발전합니다.

I 왜 필요한가?

- 대전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창조산업을 육성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 기술간 융합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대전은 R&D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기업군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 대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업은 대덕특구에서 생산된 지식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입니다.

I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지식집약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기술적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합니다.
-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대전 고유의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창의성과 과학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 기술·문화 융합형 산업을 선점하여 동 분야의 교육 및 창작활동, 산업화의 메카로 자리 잡아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합니다.

I 어떻게 추진하는가?

- 기술간 융합에 기초한 신성장기업군을 육성하여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신산업군을 확충합니다.
-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지식집약산업의 기술적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합니다.

I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서비스비즈니스모델 발굴지원
 - 지식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유망 분야 발굴을 사업화로 연결시켜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반 확대시킴
 -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라 새롭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의 발굴하여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기반 마련
 - 신규 유망 지식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하도록 매년 5개의 과제를 공모하여 비즈니스 모델개발비 지원
 - 개발된 신규 모델 사업화는 대덕특구의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 및 성장지원
- 지식서비스기업 창업 활성화
 - 지식서비스 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역외 유망 지식서비스 기업의 유치를 통해 발전 초기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확충
 - 지식서비스 분야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지식서비스 분야 마인드 제고와 아이디어 발굴
 - 대덕특구의 커넥트(High-Up) 프로그램과의 연계 하에 지식서비스 기업의 초기 창업지원
-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기업 육성
 - 지식서비스 분야 중 대전의 산업기반과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야를 선정하여 대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 대덕R&D특구 사업 및 향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책사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표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

-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주식회사’(가칭)를 설립·운영하여 연구개발서비스 관련한 창업을 촉진
- 지식서비스기업 대형화를 위한 지주회사 설립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수요의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
 - 지주회사를 통해서 연구개발의 전 단계에 걸쳐있는 연구개발서비스의 각 기능단위별 소규모 기업 간 협력을 도모
 - 컨소시엄 구성, 파트너십, 민간재단 설립 등 대형화를 지향하는 민간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기술기반 문화산업

- 기술·문화 융합형 산업 육성
 - 대전의 과학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최근 중요한 문화산업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문화 융합형 산업을 육성
 - IT와 결합한 교육 및 문화 산업 부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테크노아트 분야 등 기술·문화 융합형 비즈니스를 육성
 - 기 지정된 첨단문화지구에 기술·문화 융합형 기업 활동을 위한 자족형 문화기술산업클러스터를 조성
- 디지털콘텐츠 기업 창업지원 및 유치
 - 기술·문화 융합형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지원 및 유치를 통해서 기술·문화 융합형 산업을 선점
 -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인프라 (공동제작 및 장비활용, 펀드조성) 구축을 통해서 우수기업의 유치하고 관련 기업군을 형성

□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 첨단 융복합 비즈니스 육성
 - 대전이 가지고 있는 첨단 융·복합형 기술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
 - 대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첨단 융·복합형 기술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집적지 조성 및 창업 촉진
 - 신재생에너지, U-Health(의료), U-City(건설), 차세대국방 등 강점분야인 IT와 타 분야의 복합기술개발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분야의 창업 촉진과 클러스터 조성
- 첨단의료복합산업 육성
 - 대덕의 R&D 잠재력을 활용하여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를 구축
 - 첨단 의료 바이오 제품의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첨단의료산업연구 공간 조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을 통한 바이오산업군의 급속 성장계기 마련 및 첨단의료산업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 국방·원자력 클러스터 및 벤처센터 조성
 - 국방 및 원자력 파생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관련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과 사업화
 - 국방 및 원자력 관련 차세대 성장분야의 산업기반 조성 및 벤처생태계 조성 지원
- 우주항공 산업기반 구축
 - 우주항공 연관기업 및 연구환경에 기반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

항공 벤처기업 육성

-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관연구기관, 완제기업체와 부품산업간 동반성장 유도하고, 항공우주산업 가치연쇄 완성
- 자기부상열차 집적화 단지 조성
 - 자기부상열차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자기부상열차 사업화를 추진
 - 자기부상열차 관련 연구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자기부상열차 파생 기업군 입주를 통한 자기부상열차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미래지향적인 지식창조서비스산업의 혁신체계를 구축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창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인력과 창조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금융, 경영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식집약적 산업군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지식집약적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식서비스, 기술기반 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창조산업의 핵심요소인 인력, 연구개발 및 마케팅, 금융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과 창조산업 추진 주체를 설립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창조산업 인력양성

- 지식서비스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인력수요에 부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및 맞춤형 인재공급 기능을 강화
 - 대전RHRD센터와 연계하여 전략분야별 지식서비스 산업 인력수급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대학의 공동커리큘럼 개발 및 운용

□ 연구개발지원

- ‘대전기술융합연구원’(가칭) 설립
 - 차세대 성장산업군을 제공할 융·복합형 기술융합연구원을 설립하여 대덕 R&D특구에서 생산되는 기초과학 및 기술지식간의 융합 인력 교육, 연구기

획, 융합연구의 수행 및 융합기술의 사업화를 담당

- 기술융합연구원과 대덕특구 내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간 협력을 통해 융합연구의 기획과 실질적인 수행
- KAIST, ICU 등 역내 우수대학과의 협력 하에 융·복합 분야의 고급 이·공학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 ‘문화기술연구원’(Culture Technology Research Center) 설립
 -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접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연구·비즈니스가 연계되는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설립·운영
 - 첨단문화산업의 핵심분야인 ‘영상·음향편집’, ‘특수효과’, ‘색보정 기술’ 등 콘텐츠 산업의 Post-Production 분야 기술 지원 및 자문
 -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장비 지원 및 국내외 첨단기술, 표준화 및 특허 동향 등을 수집·분석하여 관련업체에 제공·자문
- 국방로봇 연구개발 지원
 - 대전의 특화 분야 중 하나인 국방로봇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로봇이 군수용, 민수용, 민군양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국방 분야와 로봇분야를 결합시켜 기술수준의 제고는 물론 민군양용 로봇을 개발하여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인프라 구축

- 창조산업 공공수요기반 확대
 - 국내 지식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기 까지 초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사업기획, 기술평가비용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식서비스(특히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산업의 초기 시장 확대 지원

○ 첨단기술테스트베드 구축사업

- 기술개발 과정에 있어 기술이 소비되는 실제와 동일한 환경 또는 결과 예측이 가능한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개발 기술의 적합성을 사전검증
- 테스트베드의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능력 향상과 표준화 시험, 관련 부문 기업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
-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기술 성능이 입증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해서 관련기술개발, 창업유도 등을 지원

○ 자족형 첨단문화기술 체험 및 소비 인프라 구축

- 지식의 ‘생산-활용-소비’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하여 첨단문화기술산업의 제품·서비스 수요기반 확대 및 자족형 문화기술산업클러스터 형성
-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관련자원과 기술기반 문화산업 중심의 특성화 문화산업 육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에듀테인먼트 시설 건립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기관, 박물관, 시민천문대, 국립중앙과학관 등을 연계하는 Science Bus 운행과 교육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창조산업 기획단 설치 및 혁신시스템 설계

- 창조산업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기구로서 ‘창조산업 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
- 기존 전략산업과는 다른 혁신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해 고위험성, 시장의 미성숙, 지식집약성 등의 특징에 부합하는 혁신시스템을 설계
- 창조 산업발전 기획·관리·운영 주체를 설립하여 가치연쇄 연계 및 완성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 및 법·제도적 정비(아웃소싱 활성화법 제정 등) 기능을 담당

■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경제권역별 균형발전 및 산업간 안정적인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 생산·유통·소비 활동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경제활동을 도모해야 합니다.
-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대전의 경제권역별 특성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순환구조를 고려한 기술혁신형 첨단제조업을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을 육성합니다.
-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고용흡수력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합니다.
- 산업단지를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신규산업단지와 협력적인 산업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추동력을 확보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적 소외계층인 영세사업자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가능하도록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 고부가가치의 생산적 사업서비스업분야인 무역, 금융, 정보,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분야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음식, 숙박업 등 전통개인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합니다.

I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기존산업 생산활력 증진

- 전통제조기업 하이테크화 및 디지털 산업단지화
 - 지역 전통제조업의 하이테크화를 추진하여 지역 전통산업의 기술능력을 고도화 하고 경쟁우위를 창출
 - 전통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여 전통 low-tech 기업을 high-tech 고부가가치제품 기업으로 전환
-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지원·육성
 - 대덕R&D특구의 기술적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
 - 첨단산업분야 벤처 중심의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발전을 유도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서비스발전법 제정, 기초적 연구개발, 위원회, 연합회 등 기초적 토대 구축
- 고부가가치 대도시 근교농업 육성
 -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고소득 농업을 실현하여 도심과 농촌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
 - 지역특산품 육성 및 지역 우수 명품 브랜드화, 특화 생산단지 확대 및 현대화,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확대 등

□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증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혁신환경 조성

- 지역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성장동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경영혁신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 신용보증제도 개선, 지원기관과 연계 강화 등 중소기업의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
- 첨단벤처산업 클러스터화 및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를 연계한 혁신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덕의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 및 첨단벤처기업 육성
 - 전문화된 산업부문별 중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확보 및 산업단지 간 협력적인 클러스터 구축
 - 대덕R&D특구와 산업간 연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권역별 신규 도시형 산업단지 추진
 -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마케팅 활동 등 혁신적인 산업클러스터 구축
- 국내외 미래 선도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
 - 미래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
 -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와 함께 관련 서비스업분야 기술인력 양성
 -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및 신규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
- 중소기업의 국제통상 및 수출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국제통상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무역종합센터’(가칭)를 설립하고 기술상용화 지원프로젝트 추진
- 연구소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시제품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제품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지원 사업 추진

□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순환구조 형성

- 지역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권력별 상권 활력 증진
 -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자영업주로 구성된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활성화하여 서민생활 안정 기반 구축
 - ‘시장별 리모델링 및 내구성 있는 필요 시설 조성’, ‘품목의 다양화·전문화’, ‘개별시장별 특화시장 조성 및 이미지 통합화를 통해 광역형 시장 활성화
- 물류유통기반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 중부권 광역교통 결절지로서 물류·유통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과 유통이 원활한 선진 물류·유통의 중심도시 실현
 - SHIFT 경쟁력 갖춘 물류유통단지 확충 등 유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물류·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 지역생산물의 내수와 수출 진작 사업 전개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역생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지역기업내수 및 수출 원활화를 도모
 - 대전의 지정학적 조건과 교통결절지로서의 장점을 활용중부권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 제고

■ 충청광역경제권의 형성을 통하여 미래 신성장 경제기지로 발돋움합니다.

I 왜 필요한가?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도시 중심의 광역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협력이 필요합니다.
- MB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대덕-세종-오송’을 연계하는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지방 분권 및 지역갈등사업의 원활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I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충청권 및 인근 광역경제권과 지역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래 국가의 신성장을 선도합니다.
- 충청권의 공통적인 특성 자원을 연계·공유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 공동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3개 시도의 접경에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고, 인력·정보 소통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합니다.

I 어떻게 추진하는가?

- 충청권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로드맵을 완성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식창출 및 인력양성 중심의 성장거점 지역을 지정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행복도시와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충청권 무역·국제통상 기능 수행을 위한 종합무역센터 등 통상협력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I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창조산업단지 조성

- 중부권 창조산업정보네트워크 구축
 - 충청권 3개 시도를 중심으로 중부권 창조산업 정보네트워크 구축하여 국가의 미래원천기술·지식을 확보·활용
 - 중부권 창조산업정보망 구축을 바탕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네트워크 (SBN: Science-Biz Network) 구축하여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산학연 인력 Pool 운영
- 창조산업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산업을 견인
 - 충청권 창조산업 기술혁신시스템을 중심축으로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조성
- ‘세종과학연구단지/대덕R&D특구/오송·오창단지’의 광역벨트화 사업
 -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 모델로서 ‘세종과학연구단지/대덕R&D특구/오송·오창단지’를 연계하는 하드·소프트 벨트화
 -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가칭) 설립을 계기로 바이오산업벨트 및 충청권 의료복합단지를 조성
- 기초응용과학 & 연구지원사업 결합형 Multi-Layer System 구축
 - 세종과학연구단지와 대덕R&D특구의 기초응용과학기술을 글로벌 사업화하기 위한 연구지원·사업화 시스템을 구축·운영
 - 기초·응용분야 과학기술역량 강화하고, R&D형 특구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정비·개선

□ 중부권의 헤드쿼터 기능강화사업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 엑스포과학공원을 대덕R&D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오창 과학단지를 연계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메카로 육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첨단비즈니스업무를 관장할 서비스산업 육성 및 첨단국제업무지구 지정
 - 인근 갑천 문화관광벨트, 문화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
- 충청광역권 지역경제본부의 엑스포과학공원 유치사업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플랜과 관련하여 충청광역경제본부를 엑스포과학공원 내 유치
 - 충청광역권 지역경제본부 입주 및 엑스포과학공원의 재창조사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전문서비스기업 유치를 고려하여 Landmark 빌딩을 건립
- 글로벌 과학비즈니스센터 구축
 -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글로벌 과학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여 중부경제권의 헤드쿼터 기능을 강화
 - 과학비즈니스센터 내에 법률, 특허, 세제, 금융, 정보, 네트워크, 행정, 쇼핑 기능을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기업 및 기관을 유치
- '충남·충북' 북부경제권 연계 'Y프로젝트' 추진
 - 광역경제권 글로벌 과학비즈니스센터를 축으로 해서 충청권 Y자형 R&D 클러스터 및 광역산업벨트 구축
 - 중부권 물류유통시스템, 산업정보망, 기술이전센터 등을 구축하고, 대전과 북서부권간 전략산업 및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 G-10 문화생활경제권 구축사업 추진

- 대전권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호간 전략적 상생 협력시스템을 구축
- 대전 도시권 G-10 문화생활경제협력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특산물 공동시장 운영 및 대청호 공동개발사업 추진

□ 충청권공동발전단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

○ 충청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충청권 Y자형 R&D 클러스터’ 및 ‘광역산업벨트’를 구축
- 충청권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의 신기술 창업지원 및 중견기업 집중 육성

○ 충청권 공동SOC사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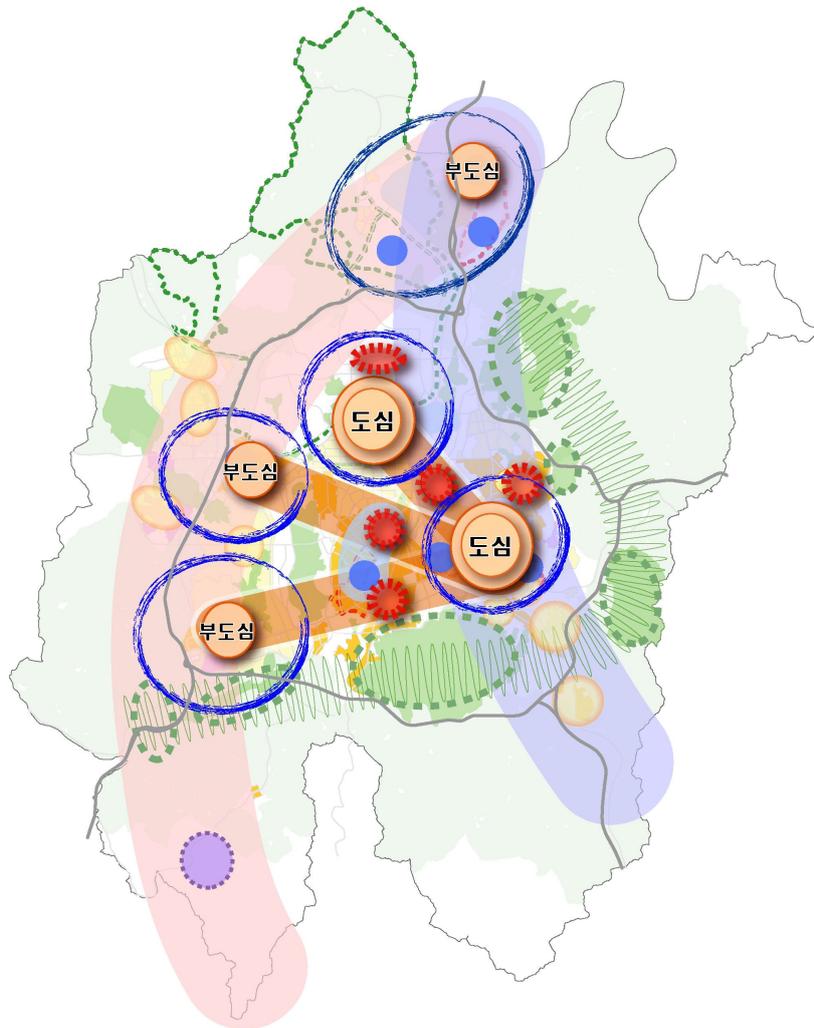
- 충청권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호남고속철도 간이역을 설치하여 수도권, 강원, 영호남을 연계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 ‘대전-행정도시-청주’간 연계 도시철도 부설 및 청주공항과 교통네트워크를 활용한 광역물류거점시설 확충

○ 충청권 관광협력사업 및 충청권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 추진

- 충청권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연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충청권의 발전 및 문화적 위상을 제고
- 백제문화제를 확대 개편하고, 충청권 온천과 관련한 관광벨트 및 축제를 공동으로 추진

2. 도시공간 재창조(Creative Urban Space)

사람중심의 녹색교통과 쾌적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 도시를 구현합니다.



■ 쾌적하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미래 도시는 시민의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쾌적하고 모두에게 열린 공간디자인을 필요로 합니다.
- 미래 도시는 ‘시가지’, ‘광장’, ‘보행환경’ 등 질 높은 도시 공유지 공간 디자인과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대전의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고품격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생활의 질을 제고합니다.
- 생활권 단위로 중심지별 도시기능을 특성화하고, 균형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주민 참여적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공간 디자인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의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합니다.
- 대전역세권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원도심 여건을 고려한 신규 문화기능 강화 사업 추진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지역별 브랜드화로 균형발전 추진

- 생활권별 대표 문화자원(주변지역)의 브랜드화 사업 추진
 - 시 내 권역 또는 생활권별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자원을 선정·발굴하고 이를 ‘브랜드(이미지)화’
 - 시 차원에서 ‘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제고
- 주요 거점공간의 랜드마크 (창조지구·타워·플라자) 조성
 - 도시적 이미지 향상 차원에서 전 지역별 ‘장소성(공간성) 또는 도시성’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출계획을 수립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장소성 확보 자원, 랜드마크(건물, 광장, 자연환경 등) 기획(선정, 발굴)
- 3대 하천주변 창조활동 강화를 위한 수변회랑(water corridor) 조성
 -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무형의 프로그램을 설계·운영
 -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Green-City 사업의 ‘푸른 하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시스템(U-City) 구축

- 유비쿼터스 기반의 공공행정 서비스
 - 24시간 개방·접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처리·행정 효율성을 제고
 - 재난 예측 시뮬레이션, 구급정보 지원시스템, 통합경보 발령 시스템 등 효

- 과적인 교통·방재·소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를 실현
- 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업무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서비스 지원
- U-비즈니스 육성(유비쿼터스 기반산업 육성)
 - U-Daejeon 계획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술자 육성
 - 창의적인 기술이나 유비쿼터스 실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 지원 및 사업화 비용 저리대출로 상품화 지원
 - 유비쿼터스 사업체에 대한 행정제도 간소화, 각 종 세금 혜택을 통한 사업비 절감으로 전문 R&D기관 육성
- U-시티 인프라 구축
 - R&D 창조계층이 찾고, 정주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Wellbeing 도시를 조성
 - 효율적인 U-City 조성을 위해서 서남부 지구를 대전형 U-City 시범지역으로 개발 추진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지식의 교류·창출을 위해서 주요 공공장소에 Wireless Lan 인프라를 구축
- U-웰빙 시스템 구축
 - ‘U-creative city 대전’에 적합한 ‘시민 건강 가정 만들기’를 위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 가전·통신 설비가 융합된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및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홈 네트워크 확대
 - 휴대폰 및 휴대용 건강관리기기를 통한 건강상태 수시체크 등 생활에 근접

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 고품격 도시조성 종합마스터플랜 작성
 - 감성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명품도시 마스터플랜 마련
 - ‘도시경관기본계획’에 기초해서 전반적인 도시 공간계획의 틀 내에서 어메니티(amenity)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
-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 도시결절점·가로환경 정비
 - 도시환경의 가장 기본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로 및 결절점의 환경을 개선하여 대전의 도시매력도를 제고
 - 종합마스터플랜의 틀 내에서 주요 간선도로, 결절점(광장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
- 고품격 보행전용공간 조성
 - 차량 위주의 가로·결절점 환경을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고, 기존의 시가지의 보행공간 재정비 추진
 - 생활권별 보행전용 공간을 재검토하여 각 권역별 보행로 재생 및 상업·업무지구 내 보행 공간 재정비 추진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고령화 사회 대비 대전형 신 주거모델 개발 추진
 - 점증하는 고령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추진
 -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에 기반한 고령자 콜렉티브 주택, 실버 하우스(silver housing) 등 맞춤형 주택모델 개발·지원

- 우수 주택단지 관리 인증제 실시
 - 주민 자주적 주택환경의 조성·관리를 통해서 주민 화합과 교류를 유인하고, 주민의 마을 공동체 의식을 제고
 -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를 홍보·보급하고, 우수 단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 지역간 차별적 개발을 극복하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 수립·추진
 - 도시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낙후지역을 권역의 주요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을 회복시킴

■ 푸른 숲과 맑은 물로 친환경 그린도시를 실현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푸른 녹지와 맑은 물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급격한 도시팽창에 따라 도심 내 수변·녹지 공간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물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그린도시를 실현합니다.
- 오래된 도심 내 철로 주변의 불량경관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원도심 등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도심 속의 생태 숲을 조성하여 생태와 전원기능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활공간을 구현합니다.
- 3대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되살려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수영할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합니다.
- 기존 체육공원의 용도 확장을 통해 ‘도심 생태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색의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I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시민밀착형 늘푸른 그린도시 조성

-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 지속적인 나무심기 운동으로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녹색 도시 환경을 조성
 - 1010년까지(1·2단계) 1,200만 그루, 2020년까지(3·4단계) 1,800만 그루를 식재예정
 - 3·4단계 계획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2011년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하여 추진
- 산업단지 수림대 조성사업
 - 산업단지 산림수림대를 조성하여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산업체에 대한 폐쇄적 이미지를 개선
 - 기존의 벽돌이나 철재 담장 철거 후 교목위주에 수림대를 조성하되, 확산범위가 큰 방향으로 우선 조성
 - 대기오염물질 정화에 효과적인 수종을 중심으로 수림대를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완충지대를 확보
- 도시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 일반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도시공원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
 - 각 도시공원별 혹은 생태공원별로 특성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공원별 식생태사업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수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차별성 강화

□ 수변공간, 자연으로의 회귀 프로젝트

- 3대 하천 생태복원 사업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원래 자연의 모습으로 되살리기 위한 3대 하천 복원사업 추진
 -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여울개량, 응벽녹화, 호안정비, 은제설치 등에 의한 생태복원공사 실시
- 지천살리기 추진사업
 - 호안 및 제방 정비, 하수관거 정비, 강수시 월류부하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 접근성을 제고
 - 소규모 생태하천에 적합한 수질 및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산책로와 자전거 겸용도로 등 시민 이용시설을 설치
- 목척교 복원 사업
 - 목척교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
 - 중앙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실시하여 명품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상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하수관거 BTL 사업
 - 하수관거를 재정비하여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유출 및 오염 문제를 해소
 - 계곡수 및 하천 유입수 등의 불명수유입 차단하고, 서구 월평동, 유성구 장대·봉명동, 대덕구 회덕동, 오정천 부근 분류식화

□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기후변화 마스터플랜 작성사업
 - ‘G8확대정상회의’ 및 ‘저탄소 녹색성장선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
 -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
- 탄소포인트제 실시 사업
 - 시범공동주택(대규모 아파트 등)에서 전기·가스·상수도의 저감량에 대한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 실시
 - 가구 및 개인별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의 증감을 파악하여 탄소포인트를
- 기후변화대응센터 신설
 -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수질오염총량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전문기구 신설
 - 기후변화대책특별법에 의한 기본(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및 수질오염총량제 기본(시행)계획과 이행평가 수립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전환

- 공공건물 에너지자립형건물 추진사업
 - 공공부문 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적용사업 발굴 및 저탄소배출 사업 추진
 -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건물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건물특성과 형태별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도시)조성사업
 -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대체에너지사업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
 - 풍력,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연료, 태양열 온수·난방, 집광형 태양열 발전, 폐기물에너지,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적용
 -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 및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카, 에너지 독립형 주택, 그린 실버 홈 주택 사업 등을 추진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사업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를 설치하여 필요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
 - 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폐기물 자원순환단지 조성하고, 폐기물 고품 연료화하여 자원순환을 극대화
-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화시설 확충
 -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에 대비하여 에너지 재생을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화 시설을 설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혐기성처리에 의한 메탄 등을 연소가스로 변환·사용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여 악취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저감
 - 하수슬러지의 자원화를 적극 유도하여 매립으로 인한 매립장의 사용연한 감축을 최소화

■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교통정책이 주로 사람보다는 자동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보행이나 자전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 승용차 이용 인구에 비하여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 도시의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교통정책의 기초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 도시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확충·정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수준을 제고하여 교통 분담률을 345%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철도체계를 효율화하고 시내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보도시설 정비’, ‘지구교통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확충·정비·개선하여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보행자 위주 환경조성

- 미래형 도시철도 도입
 - 장래 지속적인 자동차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
 - 도시철도 리셔플링(Reshuffling)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네트워크 효과 달성 가능한 도시철도계획의 수립하여 미래형 대중교통환경 조성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 중앙로를 보행자 우선의 공간, 대중교통 중심 공간, 쾌적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
 - 차량위주의 중앙로 도심공간을 쾌적한 보행자 위주 공간으로 조성하여 횡단보도 부족, 보행동선의 단절, 편의·문화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 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1단계 ITS 사업이 완료되어 시스템의 성숙도 향상을 위한 2단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무조건적인 확장과 기술적 트렌드 추종을 지양하고, 1단계 시스템의 기반을 유지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자전거교통인프라 확충

-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 자전거 주행의 연속성, 안전성을 갖는 도시의 자전거이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 기존 자전거도로 중 미싱링크 연결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며,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전거전용차로를 설치

○ 안전한 자전거보관소의 제공

-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도시의 자전거보관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확산
- 디자인을 고려해서 설계·설치하되 대중교통 주요결절지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에 우선적으로 개별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 It's Bike 도입

- 대중교통과 연계한 체계적인 보관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
- 자전거, 키오스크, 보관소, 거치대 등 부속 시설물 및 통제 소프트웨어 설비 설치를 포함하는 '대전 U-Bike 시스템'을 구축·운영

○ Bike Friendly Zone 운영

- 자전거를 주요 도시교통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정책 시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서 소규모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
- 집중적, 적극적 투자와 환경조성을 통해서 자전거주행여건 개선, 연결성 및 연속성 향상, 노면표시 및 표지, 기하구조 개선
- 대중교통연계, 자전거를 고려한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자전거전용신호 등 다양한 자전거 정책의 개발 및 적용

□ 배출가스 저감 및 연료효율 제고

○ 공회전 금지 및 장치보급

- 자동차연료소비의 효율화를 통해서 점차 심각해지는 도시의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공회전 금지기의 보급 및 연차별 계획 추진

-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
 - 경유 시내버스 차량을 CNG차량으로 교체하고, 교체 시 차량구입비 보조
 - 천연가스 충전소 확대 및 이동충전소 보조

□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교통사고 치사율, 뺑소니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복합적 시스템 구축
 - 첨단기술을 적용한 다기능 시스템으로 차량 운행속도 표출, 통행차량 번호 인식, 학교주변 모니터링 및 동영상 녹화, 음성방송 기능 구축
- 우회전 금지 추진
 -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RTOR 금지를 통한 횡단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 RTOR 금지 관련 법령 개정 및 보행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를 지정하여 우회전 금지 신호등 설치
- 도시통행속도 제한
 - 교통제한속도를 조정하여 도시의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속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
 - 대전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제한속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한속도 설정 원칙에 근거하여 간선도로망의 제한속도를 재설정
- 교통안전 및 문화운동
 - 창조도시 대전에 걸맞은 교통의 중심도시에서 교통의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교통 기반 조성

-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안전 중심의 교통정책, 어린이 교통문화 운동, 양보와 배려의 운전문화를 위한 초보운전·실버 스티커 확대 등의 사업을 강화
-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노인 보행 다발지역에 노인보호구역 설치 등의 사업 강화

5. 나눔의 복지 (Advanced Welfare)

다양한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통합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나눔의 복지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미래지향적인 선진적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예방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생활의 형평성과 편의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실현합니다.
- 시민의 높아진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선진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달 및 수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아이디어 및 아이템 개발, 프로그램 개발·설계를 통해서 웰빙(Well-being)시대에 걸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복지서비스 운영시스템 정비

- 복지전달체계 점검 및 평가
 - 복지전달체계의 상시점검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중앙정부의 개편과 교감 하에 대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시행계

획을 수립·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제고

-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점차 분화되고 다양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담당자 간담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고, 업무 및 인력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강화

□ 도시융합형 복지환경 조성

- 무지개프로젝트의 연속·강화 추진
 - 저소득층 밀집지역 슬럼화 현상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 건강예방서비스를 개선하고,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을 확산하기 위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병률 등을 파악하고, 4대 영역(운동, 비만, 영양, 절주)에 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 담당인력의 건강증진사업 수행경험 부족을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모든 시민이 도시생활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단별 복지수요에 대응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제공해야 합니다.
-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에 따라 출산, 육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문제가 시급한 정책적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점차 증가하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개별 취약 집단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가치관이 변하고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종래 가족관계에 의존했던 보호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출산의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제반 사회문화 환경을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인권과 복지가 구현되는 양성평등 도시를 구현합니다.
- 영유아 및 아동이 잘 자랄 권리가 보장되고, 안심하고 보육과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취약계층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이 고루 웰빙(well-bing)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합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이 확대 보장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성 평등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합니다.
- 노령인구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

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추진합니다.

-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및 정상화 환경 조성 방안을 수립·추진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여성의 창조역량 강화와 활용

- 세계 창조 여성 포럼 개최
 - 세계적인 여성 리더(CEO, 학자, 전문가, 사회운동가 등)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창조도시 대전의 대외적 이미지 및 홍보효과 제고
 - 개별 여성 리더들이 마련하는 차세대를 위한 멘토링 세션, 창조여성 리더들의 직업 세계 Booth, 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한 만남의 시간 등
- 경력단절여성 뉴커리어 빌딩 프로젝트
 - 경력단절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경력개발을 지원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기회를 제고
 - 경력단절 여성의 욕구와 수요에 기초해서 취업 가능 영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새로운 경력 개발·발전을 지원
- 지역사회 여성 리더십 교육의 통합 및 내실화
 - 대전지역 여성 리더의 양성 및 여성리더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교육 및 보육시설장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내실화
 - 자원봉사단체장 및 여성단체장의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의 기회를 지역 여성 리더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

□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 추구

- 저출산 대응 가족 문화 이벤트

- 가족의 행복을 부각 시키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도모
- 즐기는 축제와 더불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Booth,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진단 Booth 설치 및 강연
- 다문화가족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아동과 멘토가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인식을 제고
 -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의 자매결연이나 멘토십을 형성하고,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해 다문화가족아동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③ ‘별별’가족 축제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빈곤가족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와 활동, 공연 관람, 전시회 등을 통해서 사회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

□ 어린이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전문보육상담사의 양성과 시설 파견
 - 보육서비스 지원을 시설 중심에서 보육 서비스 인력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혜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 기존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하면 전문 인력을 시설로 파견하여 보육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
- 참여하는 부모 아카데미
 - 보육관련 ‘부모 아카데미’(가칭)를 운영하여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부모 모니터링 요원을 양성

- 부모 아카데미를 이수한 부모집단이 정기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
- 우수보육시설 인증제 및 포상제도
 - 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하여 우수 보육시설이나 모범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굴
 - 발굴된 우수 보육시설이나 모범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주어 보육시설의 양질화를 유도
- Dream Start Project
 -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적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
 - 아동급식지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및 시민결연 후견인 제도 시행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경로당 운영 지원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 및 건강 증진
 -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용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로당의 여가환경 개선
- 노인능력개발 (생애주기 교육)
 -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원을 개발
 - 노인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통해서 노후의 취업역량을 강화

□ 장애인 및 소수자의 활동과 자활 보장

- 장애우행복일터 (장애인복지공장) 건립
 - 장애인 공동일터인 복지공장의 건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 도모

- 장애인 80명~100명의 취업이 가능한 복지공장 건립 및 운영 지원
- 장애인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 급증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활센터 건립
 - 중부권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 공공시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젝트
 - 장애인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한 활동 편의 증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조례 제정 및 사후 관리 강화
- 소수자 활동지원
 - 소수자 문화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거점으로 문화교류 및 협력의 장을 구축하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을 확산
 - 외국인,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가 주도하는 문화 공간과 교류 활동을 지원

■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점증하는 지역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적 서비스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점차 개인화하는 고령사회의 복지서비스는 해체되는 가족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복지공동체가 필요합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세대간 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연대와 참여에 기초한 공동체적 복지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지역민의 다양한 집단별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눔의 복지공동체’를 실현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기초해서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함께 분담하는 선진적인 나눔의 복지시스템을 실현합니다.
- 관·민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시민참여를 적극 유인하여 복지서비스의 양·질적 확충을 도모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시민참여 네트워크 강화

- 자원봉사네트워크 구성
 - 각 소속별 봉사단체간, 봉사단체와 수요처간 정보공유체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추진
 - 봉사단체간 협력사업 확대 및 기업연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

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

○ 즐거운 자원봉사서비스 제도 정착

- 즐거운 여가와 뜻 깊은 봉사활동을 결합한 즐겁고 신나는 복지제도 정착
- 레포츠로 즐기는 자원봉사, 추억 있는 여름방학 만들기, 함께하는 요리 축제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함께 나누는 시민문화 정착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구축

○ 장애인 성년 후견인 제도의 실행과 정착

- 후견인 결연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위기예에 대한 예방 체계를 구축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뱅크 구축

○ 고령자 자원봉사 ‘연결 끈 카드제’

- 자원봉사 활동과 공통 포인트 카드제를 연계해서 노인대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
- 병원 모셔가기, 말동무하기, 독거 고령자 보호 등에 대한 서비스에 봉사시간에 따라 쿠폰 제공

○ 반사회적 행동방지 ‘존경 프로젝트’

- 지역사회 차원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 시행
-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가정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6. 문화예술도시 (Creative Culture & Art)

감성을 자극하는 풍요로운 문화예술 활동과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하는 다
원적 문화예술 공동체를 구현합니다.

■ 감성을 자극하는 창작예술 활동의 도시가 됩니다.

I 왜 필요한가?

- 대전이 도시의 창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 창작 예술인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창조산업 관련인력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I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일상적 생활 속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체험이 가능한 창조도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지역의 자라나는 젊은 예술인이 새로운 실험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I 어떻게 추진하는가?

- 도심의 유휴공간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창작예술인이나 단체에게 제공합니다.
- 리모델링되는 창작공간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자라나는 신세대 문화예술 인력이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르 특성에 따라 예술인이 자유롭게 거주·생활하면서 함께 창작활동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창작예술인 촌’을 조성합니다.

I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순수 창작 예술인 활동 지원

- 소규모 공연장(연습공간) 확충
 -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창작예술인이나 단체에게 시설을 활

동공간으로 제공

- 자라나는 신세대 문화예술 인력이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
- 지원받는 창작예술인은 예술에 관심이 있는 소외계층 자녀의 예술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인센티브 활용)
- 가능하면 원도심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임대·지원

○ 대전 예술인 창작촌 조성

- 지역예술인이 공동으로 거주·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작촌을 조성
- 자연과 교감을 통해서 창의적 영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시 외곽지역에 자연·환경 친화적인 부락으로 조성
- 창작예술인이 자유롭게 거주·생활할 수 있도록 장르 특성에 따른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다양성을 견지 (창작예술인이 스스로 설계)
- 청소년의 위한 문화예술체험 교육의 장이자 동시에 외부 방문객이 대전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창작공간 조성 (관광투어와 연계 조성)

□ **창작예술인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

○ 아트 플라자 (Art Plaza)

-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문화예술 활동기반으로 활용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성을 접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창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일상생활 공간에 조성
- 시내 유휴지나 자투리 땅에 아트 타워, 아틀리에, 갤러리, 스테이지 등과 같은 문화예술 창작·연습·전시·공연 공간을 조성

○ 대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 지역 문화·예술 지원 및 진흥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추진하는 민간 기구로서 ‘대전문화예술재단’(가칭)을 설립
- 대전문화·예술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지원할 수 있는 총괄적인 사업 추진시스템 구축

■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적 도시 공간을 창출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적 공간 디자인을 연출하여 창조계층의 눈높이에 걸맞는 도시의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이벤트, 퍼포먼스가 연출되는 풍요로운 문화·예술 도시 구현하여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를 실현해야 합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도시의 예술적 공간 디자인과 다양한 문화시설과 상호작용하는 질 높은 미래지향적 생활공간을 연출합니다.
- 일상 속에서 풍요로운 문화·예술 이벤트가 연출되어 일상에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명품도시를 구현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전통과 스토리가 있는 장소 발굴하고, 창의적인 명품 공간으로 조성하여 옥외 생활의 질을 제고합니다.
- 다양한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이벤트, 퍼포먼스가 일상적으로 연출되는 도시문화를 창출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시민 생활문화 향유여건 개선

- 동네(마을) 문화학교 운영 활성화
 - 마을(동네) 단위의 제한적인 생활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접촉·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
 - 기존의 유휴 시설이나 ‘주민자치 센터’, ‘문화의 집’ 등을 활용하여 ‘동네문화

학교' 운영

- 노약자 및 소외 계층을 포함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감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원적으로 기획·운영
- 국제 기획공연, 전시 사업 확대 강화
 - 우수한 지역 문화예술 공연전시 인프라를 활용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체험·감상 기회 확대
 -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연주단 초빙 기획공연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국제적 문화·예술 체험·교육 기회 제공
- '창의철'(가칭)
 - 지하철의 여분의 내부공간을 창조도시 대전의 이미지에 맞게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
 - 지하철 역사 내부에 전시·공연 공간을 조성하여 창작예술 활동을 하는 소규모 동아리를 대상으로 무상 혹은 저렴하게 대여

□ 감성적 도시문화 체험공간 조성

- 중앙로 창조교류회랑 조성
 - 원도심 중앙로를 창조도시 대전을 이끌어갈 선도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해 문화·예술 및 대내외 교류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
 - 중앙로를 대전 시민과 방문객, 여가와 교육, 전통과 현대가 조화하는 융합 공간으로 조성
- '갑천크리튜브'(가칭) 설치
 - 갑천을 중심으로 신도심, 엑스포과학공원,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갑천 크리튜브'를 조성하여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하는 창조도시 기능 강화
 - 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창조산업 육

성을 위한 복합 창조공간 조성

- 엑스포과학공원의 기능전환과 함께 갑천변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일상적인 시민의 레저공간 제공
- ‘대전시립박물관’(가칭) 조성
 - 대전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대전시립박물관’(가칭) 조성
 - 가능하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하되, 전통·현대·미래가 병존하는 테마별 전시·교육 공간 조성
- 컬처 비즈니스 클러스터
 - 원도심과 신도심에 문화 사업화를 위한 창업 공간 및 문화산업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어 문화산업 창업기반을 지원
 -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단계 기업을 수용·지원

■ 상이한 가치가 존중되는 다원적 문화공동체를 실현합니다.

Ⅰ 왜 필요한가?

- 대전이 국제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관용의 도시문화가 필요합니다.
- 창의적인 도시문화는 상이한 가치와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의 관용성으로부터 생성됩니다.

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상이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배려·존중되고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관용의 문화도시를 실현합니다.
- 창의적인 사람이 찾아와 정주하면서 지역 산업에 기여하는 매력적인 관영의 창조도시 대전을 구현합니다.

Ⅰ 어떻게 추진하는가?

- 외국 노동자, 방문객, 결혼이민자 등 상이한 문화적 전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다원적 문화 공동체를 발전시킵니다.
- 상이한 가치와 다양한 문화적 전통의 이벤트가 활성화 되고, 시민참여의 이벤트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도시의 생활문화를 창출합니다.

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시민의 창의적 문화 체험

- ‘대전미디어 센터’(가칭) 건립
 - 상영관과 영상제작시설을 갖추고 미디어교육, 감상, 제작, 영상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 관리 및 보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센터 건립

- 영상정보시대에 필요한 주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공적 차원에서 제공
-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에게 영상교육, 영상제작, 감상 및 토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시설을 제공
- 동네 ‘마을쉼터’(도서관) 확충
 - 지역민의 도서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동네마다 주민이 쉬면서 책과 벗 할 수 있는 작은 마을도서관을 확충
 - ‘대전시민 책읽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에서 주민의 쉼터 기능을 겸하면서 책과 벗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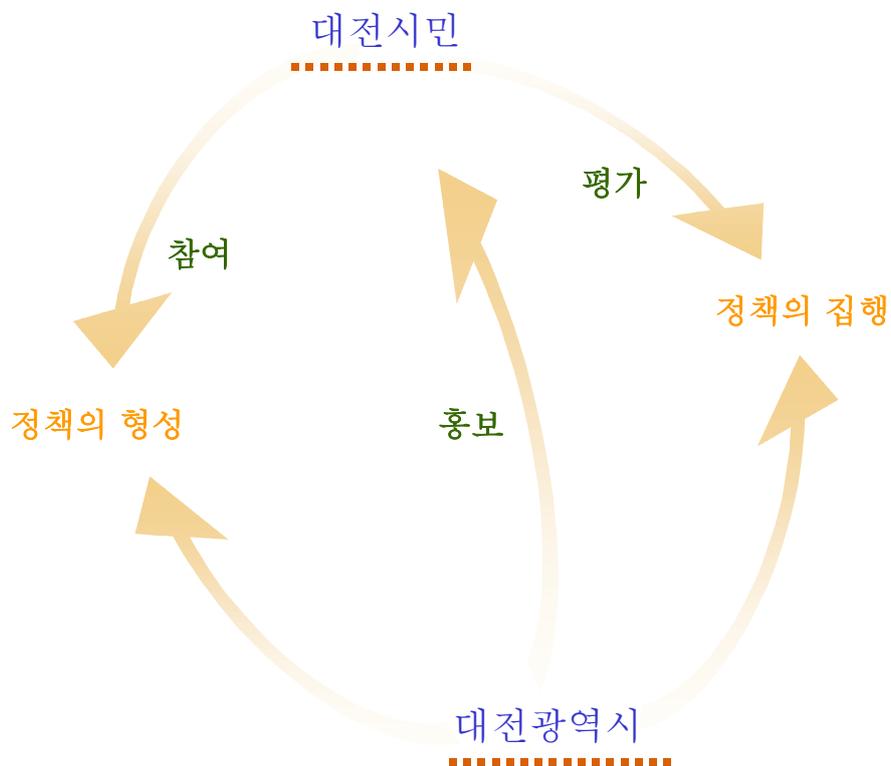
□ 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대전다문화지원센터 설립·운영
 - 점차 증가하는 지역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 적응을 돕고, 상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가능하면 기존 ‘문화의 집’ 건물이나 도심의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
- 선진적인 사회체육 시스템 구축
 - 점증하는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 사회체육 지원시스템을 구축
 - 사회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체육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하며, 국내·외 스포츠대회의 유치
-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류 공간 조성
 - 지역에 상주하는 외국인 및 방문객을 위한 교류의 공간 조성하여 타문화 간 통섭의 장을 마련

- 대전국제교류센터, 국제친교센터,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인터내셔널친선협회, 국제교류문화원 등을 확대 운영
- 문화예술창조조례 제정
 - 대전의 도시 창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
 - 기금, 제도, 시설, 문화환경, 문화산업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문화예술 정책 실현을 위한 인력, 재정, 시설, 규칙 등의 요소를 포함

8. 소통과 참여(Communication & Governance)

-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정책 의제를 형성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대민 홍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정책의 집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제를 가동하여 정책의 품질을 제고합니다.



■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합니다.

I 왜 필요한가?

- 인구·경제활동이 광역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역적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거버넌스 시대에 다양하게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만이 아닌 민간부문과 협동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공동생산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시민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쌍 방향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대전과 인근 자자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광역적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합니다.
-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열린 행정 구현합니다.

I 어떻게 추진하는가?

- 중·장기적 '상생협력의 모형'을 개발하여 공동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 정책결정, 홍보 평가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협력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효율성·민주성을 제고합니다.

I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 대전대도시권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 G-10의 행정협의회 공식화 추진
 - G-10의 공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참여기관의 기능, 권한, 책임 등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
 -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로 공식화하여 회원단체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원단체의 공동발전과 이익을 모도
- 대전대도시권(G10)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 G10 회원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G10 명의를 품질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제고와 판로개척
 - G10의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영상물 제작, 품질인증기관과 품질인증 요건의 개발, 공동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추진
- 대전대도시권 상공인포럼 개최
 - 광역권의 경제적 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광역권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 ‘G10 상공인 포럼’(가칭)의 결성, G10 상공인 포럼 사무국의 설립 운영, G10 경제통계센터 설립, G10 취업박람회 개최

□ 주민의 자치역량 기반 조성

- 소규모 마을축제의 발굴 및 지원
 - 주민이 중심이 되고, 참여·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하여 주민자치의 저변을 확대
 - 축제의 소재 찾기 및 이름 짓기, 마을축제 지도 작성, UCC 공모를 통한 소규모 축제의 발굴, 마을축제 등록제 실시
- 주민자치역량 개발 증장기계획 수립
 - 지방자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역량을 체계적으로 진

단·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자치역량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주민자치역량의 구성요소 발굴, 주민자치역량의 구성요소의 진단, 주민자치역량 강화프로그램의 개발, 주민자치역량 개발 로드맵 설계

□ 행정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 행정 품질관리제 도입

-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극대화시키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의 '품질관리제' 도입
- 행정품질의 비전과 전략수립, 행정품질동아리(CoP)의 활성화, 행정품질 아카데미 개설, 행정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 ISO 9000 인증 추진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입증된 ISO 9000의 표준규격을 도입·시행
- 추진계획 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조직 구성, 시험 운영, 내부심사, 행정진단, 시정·예방조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진단 및 개선

- 창조도시의 관점에서 지방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을 진단하여 창조도시의 가치를 부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대전공무원교육원에 창조적 인재개발 TFT 설치·운영 및 창조도시의 관점에서 공무원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

○ 공무원 후생복지 5개년 계획수립

- 공무원 후생복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공무원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 그리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
- 대전시 공무원의 여가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

성을 위한 직원의 후생복지 내실화

○ 창의행정 인프라 구축

- 창조도시 대전에 적합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창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
- 리더의 철학 및 방향제시하에 중간레벨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들·업·다운 행정체계 구축

□ **시민 참여적 소통의 도시 구축**

○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현장민원기동대’ 운영

-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 협조체계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국책사업 유치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구현
- 국책사업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국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국책사업유치의 비용효과(B/C) 분석

○ ‘오만상상포럼’ 발족 운영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아리 형태의 학습조직을 구축·운영하여 자발적 시민학습 협의체 육성·발전
- 창조 시민 포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대한 의견의 장 형성하고,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분야별 주제 토론 및 정책 발굴

○ ‘커뮤니티 커넥트’운영

-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커뮤니티 또는 동호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을 통한 소통의 기회 확대
- 이질적 분야의 커뮤니티 간, 학제 간 교류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사업으로서 단순 비용지원이 아닌 교류와 협력을 위한 포괄적 지원사업

○ 국제 업무 전담부서 설치 (시장 직할)

-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추진사업단을 발족하고,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 직속 관할 기구를 설치하여 국제화 사업을 추진
- 기존의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합 사업단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시장 직속 관할 기구로 운영
- 공무원 역량 키우기
 - 개방적 국제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국어, 문화교육, 국내외 공무원 교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국제수준에서의 행정서비스 확대, 환경변화에 대한 안목,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 갖추기, 문화적 다원성에 기초한 의사소통 역량 제고
- 시민의 국제교류활동 참여 및 시민의식 개방화 추진
 - 급격한 국제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풀뿌리 교류로서 '민제교류'(interpeople relations)를 지원
 - 국제교류협력단체 사무소를 유치하고,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원하여 환경보호, 국제개발, 인권보장, 평화건설, 국제협력 등 국제 네트워크에 시민참여를 강화
- 외국인 거주 편의시설 확보 (학교, 숙소, 행정서비스)
 - 창조도시 대전의 글로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의 거주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거주 외국인의 시정 참여 장을 마련
 - 대덕특구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주환경 개선·확충하여 국외의 창의인재 유인에 필요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